

[순모임 교재]

교회, 이 땅에 펼쳐지는 천국의 그림자 에베소서 2:19-22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유일한 공동체로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주는 바울의 노래입니다.

나는 평소에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해 왔는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1.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합니다(19절). 교회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을까요?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나누어 봅시다.
2.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묘사합니다(20절).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서로 몸 된 지체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바울은 교회를 '성령님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합니다(21-22절).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 함께 다듬어져 가는 곳입니다. 현재 나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영역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